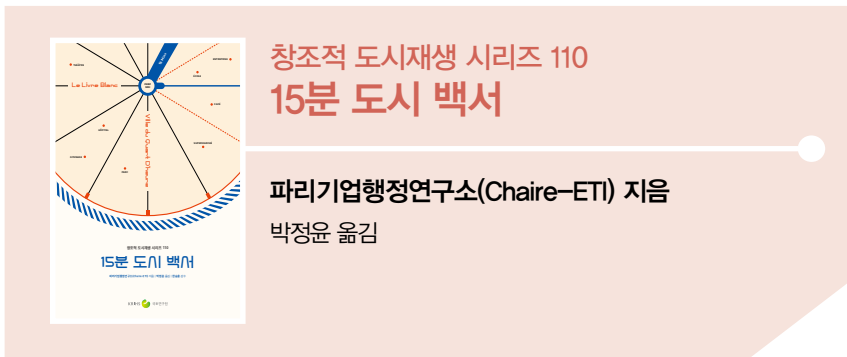


‘시간’의 차원에서 도시계획을 논하다

박현찬 서울연구원 명예연구위원 (hcbahk@si.re.kr)



프랑스 국립 파리1대학의 ‘기업가정신과 지역혁신연구소’(Chaire-ETI)의 ‘15분 도시 백서’는 우리의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시사점과 접근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서두에서 일상의 도시생활 패턴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 중심의 도시계획인 ‘크로노-어버니즘’(Chrono-urbanisme)을 주창하면서 논의가 전개된다.

제1편에서는 15분 도시와 30분 지역을 위한 파리의 관문(Portes de Paris) 프로젝트를 설명한다.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시간의 차원을 소홀히 하였고, 시간을 정비하여 공간 점유에 영향을 미치는 역방향의 시도는 적었다는 반성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양질의 사회적 삶’(HQVS) 개념을 중심으로 도시를 정비할 것을 주장하고 파리의 관문 및 주변 인접 지역에서 실증적 증명을 하고자 한다. 적용된 매트릭스 기법은 6가지 도심 사회적 기능과 도시의 3가지 차원을 교차시키고 지역자원을 종합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 시뮬레이션 및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15분 도시의 용도와 서비스를 모델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록에서는 다수의 연구진과 협업 연구기관을 소개하고, 15분 도시의 6가지 도심 사회적 기능 분류와 차원별 특성 변수들을 도표화하고 있다.

제2편에서는 ‘15분 도시’의 개념부터 실현까지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15분 도시의 개념이 공론화할 가치가 있으며 국제적인 확산을 통해 도시에서 근접성의 역

할이 무엇인지 대화의 장이 세계로 열려있다고 밝힌다. 크로노-어바니즘(Chrono-urbanisme), 크로노토피아(chronotopie), 토포필리아(topophilie) 세 개의 개념을 통해 '15분 도시'의 이론적 정의를 내린다. 또 6가지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된 데이터 정형화를 도식화하고, 안 이달고(Anne Hidalgo) 파리시장의 2020년도 지방선거 공약 사업 중 하나인 '모두가 공유하는 도시 파리' 소개와 함께 파리지 15분 도시의 단계별 실현 방안을 예시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오타와, 멜버른, 포틀랜드, 바르셀로나, 밀라노 등 15분 도시 유사사례의 추진과정과 현 상황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도시별 다양성에도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근접성에 유의하면서 도시를 조직하겠다는 개념들이 다수의 도시들에서 적용되고 있는 것을 강조한다.

그간 단편적으로 소개된바 있는 파리 '15분 도시'에 대한 개념 및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 파리지와 유사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도시들의 사례를 통해 정책 추진과정을 추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도시재생 정책 관련 다양한 접근방법론의 하나로 검토하여 예측단계, 추진단계,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도시 정비 영역에서 시공간적 차원의 비중을 높여가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개념 설정에서 정책 입안까지 다수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형성과 공론화, 해외 도시와의 공조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다. 🍀



2023년 2월호에는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우리 동네 도시재생 이야기」(지역편/사례편)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